

안치홍은 벌써 '타이거즈 모드'

경찰청 야구단 소속 제주서 몸 만들기 한창



경찰청 내야수 안치홍이 전지훈련 캠프가 마련된 제주 서귀포시 강창학 종합운동장 실내 연습장에서 야간 배팅 훈련을 하고 있다.

경찰청 안치홍(상경)의 따뜻한 겨울이다.

KIA라는 이름을 잠시 내려놓은 안치홍은 '안 상경'으로 이번 겨울을 보내고 있다.

지난 1일 제주도에서 경찰청 야구단의 전지훈련이 시작되면서 안치홍의 2016 시즌도 이미 시작됐다. 어깨가 좋지 않았던 그는 배트를 다시 들고 '안백한 2016 시즌'을 그리고 있다. 익숙했던 팀을 떠나서 보낸 올해는 부족한 것 많은 시즌이었다. 가까이에서 그를 지켜보는 경찰청 관계자들과 유승안 감독도 '알아서 잘하는 선수'라며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부상이 그를 막았다.

"올 시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냉정한(?) 평가를 하며 웃은 유승안 감독은 "열심히 잘 하는데 몸이 좋지 않아서 조 심스러웠다"고 설명을 했다.

안치홍 역시 "올 시즌 100% 전력으로 한 번도 뛰지 못한 것 같다. 여기저기 많이 좋지 못했다. 캠프를 시작으로 슬슬 몸을 만들고 내년 준비를 해야겠다. 아프지 않으면 좋겠다"고 올 시즌을 돌아봤다.

아프지 않아야 한다는 안치홍.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다.

안치홍은 "막연하게 내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144경기를 뛰는 생각으로

준비를 할 것이다. 경찰청에서 좋은 활약을 해야하고, (김기태) 감독님께서 팀 상황에 따라서는 제대 후 바로 경기를 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 하셨다. 바로 합류해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프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8번"을 임시 결번으로 지정하면서 자신을 존중해준 감독님의 마음에 보답하

내년 144경기 뛰는 것처럼

제대후 바로 1군 복귀 위해

"아프지 않고 준비 잘할 것"

어린이재단 후원도 계속

고 싶은 안치홍은 응원하고 기다려주는 팬들을 위해서도 아플 수가 없다. "무조건 열심히 잘 해야 한다"는 것이 안치홍의 또 다른 이야기다.

안치홍은 "기대해주시는 팬들이 너무 많다. 6년 동안 한 자리 꾸준히 지켰다는 자부심은 있지만, 작년에 조금 잘해서 그렇지 대단한 선수 층에 걸맞은 성적을 낸 적이 없다. 팬들이 생각해주시는 그 정도로 평가받을 성적을 낸 적은 없는데 너무 많이 아껴주시고 기대해주신다. 훨씬 더

잘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익숙한 곳을 떠나있는 시간이지만 야구를 더욱 사랑하게 된 시간이기도 하다. "올라가는 것을 배우고 있다.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며 웃은 안치홍은 "올해는 잘 될까? 잘 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으로 살았던 것 같다. 이곳에서 그런 불안감이 많이 사라졌다. 다른 이들과 새롭게 호흡을 맞춰보고, 야구를 더 편하고 특별하게 생각하게 된 것 같다. 물론 야구가 안 돼서 스트레스도 받겠지만 돌아 가면 조금은 더 재미있게 몰입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를 거쳐 대안으로 건너간 겨울을 보내는 그는 12월 말 휴가가 주어지면 광주를 찾은 생각이 있다. 2009년 신인 시절부터 계속해 온 어린이재단 기부 때문이다. '1안타 1도루 후원협약'을 맺은 안치홍은 지금까지 1092만원을 기부했다. 역대 연봉자에서 군인 신분이 됐지만, 아버지께서 건강 문제로 운영을 하던 학원을 정리하면서 가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의 선행은 멈추지 않는다.

안치홍은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군복무를 하는 동안 200만원씩 기부를 하기로 했다. 나중에 돌아가면 금액도 더 올리고 더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환하게 웃었다.

/제주도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

최민정 3관왕 쇼트트랙 월드컵 심석희 2관왕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양대산맥 최민정(서현고·오른쪽)과 심석희(세화여고·왼쪽)가 2015-201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2차 대회에서 각각 3관왕과 2관왕에 오르며 세계 최강 전력을 과시했다.

최민정은 9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치러진 대회 여자 500m 2차 레이스 결승에서 42초 998를 기록, 캐나다의 마리안 생젤레(42초 999)를 0.001초의 간발의 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민정은 이어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도 나서 한국 여자 대표팀의 우승을 이끌면서 이날 금메달 2개를 따냈다. 전날 여자 1,500m에서 1위를 차지한 최민정은 3관왕의 기쁨을 맛봤다.

심석희도 '금빛 행진'을 멈추지 않았다. 전날 1,500m 결승에서 은메달을 따낸 심석희는 이날 여자 1,000m 결승에서 1분33초964로 결승선을 통과해 엘리스 크리스티(영국·1분34초028)를 따돌리고 금메달의 주인이 됐다. 심석희 역시 최민정과 함께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 참가해 금메달을 합작하며 2관왕에 올랐다.

최민정과 심석희는 지난 주말 그랑프리 1차 대회 결과를 합쳐 이번 시즌 나란히 금



메달 5개씩을 목에 거는 저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남자 대표팀은 '금빛 질주를 보여주지 못했다. 남자 1,000m 결승에 진출한 사이라(화성시청)와 곽윤기(고양시청)는 사를 쿠르누아에(캐나다·1분26초998)에 이어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냈다. 또 남자 대표팀은 5,000m 계주 결승에서 개최국 캐나다(6분58초715)에 0.018초 뒤지는 6분58초733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속수무책 방망이

일본 오타니 160km 총알투

심기일전 칼 간다



김현수

이대호

박병호



8일 오후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돔에서 열린 2015 WBSC 프리미어 12 한국-일본 개막 경기. 1회 초 일본 선발 투수 오타니 쇼헤이가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WBSC 프리미어12 개막전

오타니 쇼헤이(21·닛폰햄 파이터스)가 가장 신경 썼던 한국 대표팀 타자는 김현수(27·두산 베어스)였다.

스포츠넷폰은 9일 "오타니가 가장 경계한 타자는 3번이었다"고 전했다. 오타니는 8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돔에서 열린 2015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개막전 한국과 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을 2피안타 무실점 10탈삼진으로 막았다. 그의 구위는 한국 타자들을 절망에 빠뜨릴 만큼 압도적이었다. 오타니에 막힌 한국은 일본에 0-5 영봉패를 당했다.

사실 이번 한국 대표팀의 강점은 쏠쏠하게 짜인 타선이다. 특히 일본시리즈 최우수선수(MVP) 이대호(33·소프트뱅크 호크스)와 한국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2년

6이닝 삼진 10개 등 타선 무기력 0-5 패...내일 대만서 도미니카전

연속 50회전을 친 박병호(29·넥센 히어로즈)가 타선의 핵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오타니는 이대호, 박병호 앞에 선 3번 타자 김현수를 더 의식했다.

오타니는 경기 뒤 "나는 한국의 3번이 좋은 타자라고 생각한다. 타석에서 전해지는 느낌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좋은 타자'를 억제하고자 전력투구했다. 1회초 2사 후 처음 만난 김현수에 게 2구째 시속 161km짜리 강속구를 던졌다. 이날 오타니의 최고 구속이었다. 첫 타석에서 포크볼로 삼진 처리한 오타니

는 4회 다시 포크볼로 승부하다 김현수에 게 우전안타를 맞았다. 이날 한국 타선이 쳐낸 첫 안타였다. 6회 김현수와 다시 만난 오타니는 이날 쏘처럼 던지지 않던 슬라이더를 구사해 김현수를 삼진 처리했다. 오타니가 상대한 마지막 한국 타자였다.

오타니와 배터리를 이룬 시마 모토토로는 "직구가 워낙 좋아서 포크볼을 활용할 수 있었다. 오타니는 상상했던 것보다 좋은 투수라고 다시 한 번 생각했다"고 말했다.

오타니에게 위기는 한 차례뿐이었다.

오타니는 일본이 2-0으로 앞선 5회 무사 1·2루에 몰렸다. 그는 "3명을 모두 삼진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무덤덤하게 말했다. 그의 뜻대로 허경민·강민호·나성범이 연속 삼진으로 물러났다.

오타니는 예비 메이저리거가 포진한 한국 타선을 제물로 다시 한 번 메이저리그 스카우트의 시선을 빼앗았다.

스포츠넷폰은 "메이저리그 스카우트가 오타니의 시속 147km짜리 포크볼에 상당히 놀랐다. '안백한 투수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한일전, 일본이 더 뜨거웠다 시청률 일 19%...한 8.8%

한국과 일본이 맞붙은 2015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공식 개막전을 향한 관심은 일본에서 더 뜨거웠다.

일본 데일리스포츠는 9일 "아시아TV로 8일 오후 7시부터 생중계한 일본과 한국의 프리미어12 개막전의 평균 시청률

은 19.0%였다"고 보도했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일본의 5-0 승리를 앞둔 9회초에 기록한 24.7%다.

한국에서는 SBS가 이 경기를 생중계했다. SBS미디어넷은 "평균 시청률은 8.8%였다"고 밝혔다. 한국이 2점을 내준 2회말 수비 때 이날 순간 최고 시청률인

14.9%를 기록했다.

일본에서 프리미어12 개막전은 꽤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피겨 스타' 아사다 마오의 시니어 그랑프리 복귀전에 대한 관심에는 미치지 못했다. 아시아TV는 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15-2016 국제빙상경기연맹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3차 대회 '킵 오브 차이나'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 경기를 생중계했다. 평균 시청률은 23.2%였다.

/연합뉴스



수창초, 광주 추계 초등야구대회 우승

수창초가 2015년도 광주 추계 초등야구대회 우승컵을 차지했다.

수창초는 최근 리틀볼광주장에서 끝난 추계 초등야구대회 결승에서 서림초를 11-3으로 이기며 우승했다.

서림초와의 첫 경기에서 12-5, 5회 월드컵을 기록한 수창초는 화정초(7-0), 대성초(15-3), 학강초(6-3)를 차례로 꺾고 결승에 진출하는 등 5전 전승으로 정상을 밟았다. 또 추계 초등야구대회에 이어 추계 대회까지 우승하며 광주지역 야구대회 2관왕에 올랐다.

한편 9일 분당리광주장에서 제12회 기

아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초등학교 야구대회가 개막했다. 광주·전남 13개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13일까지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시상내역

▲최우수선수상 : 조성식(수창초) ▲우수투수상 : 강하늘(바다수창초) ▲타격상 : 이석현(0.916·수창초) ▲최다도루상 : 최민규(8개·수창초)▲최다타점상 : 이규민(7타점·수창초) ▲감독상 : 정원진(서림초) ▲미기상 : 고원원(서림초) ▲감독상 : 류창희(수창초) ▲지도상 : 정경용(수창초 부장) /김여울기자 wool@